1주차

[1~5]

>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 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텄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 운동**이다.

환경 오염과 같은 내용들을 시작으로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를 '환경오염'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주의해야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를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신과학 운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그럼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 정도겠네요. 화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군요.

전 지구적 문제
- 원인 : 기계론적 세계관 :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 > 신과학 운동 등장(사고 전환)

주목해야할 점 : 올바른 화제 찾기

> **신과학 운동**의 또 다른 뿌리는 20세기의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분자, 원자를 거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마침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 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양자 역학은 계속 발달하여 현대 물리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신과학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 이래 300 년간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결정론적 인과율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였다.

앞에서 잡았던 키워드대로 신과학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네요. 1문단에서 스스로 해당 키워드들을 캐치하셨다면 당신은 국어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캐치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보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금방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십세기 많이 풀어주세요~~

아무튼 신과학 운동과 현대물리학(양자역학)을 설명하고 그것을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네요.

내용정리 합시다.

신과학 운동 : 현대물리학(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 물질의 궁극적 구성단위 -> 양자역학
- 하이젠베르크 : 불확정성의 원리(위치, 속도 동시 예측 X)
- > 양자역학 : 확률적 예측만 가능(인과율, 인과적 예측 X)
- 아인슈타인 : 인과율 존재 인정 - '신은 ~ 않는다'
- 양자역학 발전 -> 신과학의 관점 떡상, 기계론적 관점 떡락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전개

>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신과학 운동의 대조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과학 운동을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정의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조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네요.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이라는 키워드만 잘 잡았다면 쉽게 문제가 풀리셨을 겁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 물질 구조, 환원적, 문석적 방법
= 부품 간 상호 인과관계 -> 전체 이해

신과학 운동(유기체적 세계관) : 전체 > 부분의 합, 부분과 전체 사이의 상호작용, 전일적, 종합적 접근법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개념의 비교 및 정리

※ 조금 어렵지만, 1문단에서 키워드를 잡고 화제를 잡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떠올리기 힘든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넘기셔도 됩니다.

1문단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안으로 신과학 운동이 등장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론적 세계관 -> 문제 인식 -> 신과학 운동(대안)의 과정인데, 이는 시간의 흐름과 대체(변화)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낸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의 대체과정이라는 점까지 파악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신과학 운동의 변화 및 차이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구나 라고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실전에서 저 정도의 사고과정을 거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는 바입니다.

1. ②
기계론적 사고가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냈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전 지구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결과의 발생을 '사고방식'이라는 원인에서 찾고 있네요.
고로 인과 관계 정답은 2번입니다.

2. ③
㉡은 결국 인과율을 긍정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인과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익숙한 문제 유형입니다. 속으면 안돼요.

① 앞에서 말했듯이. ㉡은 결국 인과율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인슈타인은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유신론자가 됩니다.

3. ⑤
신과학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sum$부분', '전체-부분 상호관계'입니다.
고로, 민족사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세계사라는 전체적 맥락이 필요하다는 5번이 정답입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민족사와 세계사의 맥락)를 만족하네요.
또, 단순한 민족사의 결합 이상의 세계사의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① 전체 = 부분의 합이네요.

② ?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을 알아야한다..? 이상하죠.

③, ④ 동문서답

4. ④
현대 문명의 위기는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매칭해보면 생태계 위기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낳았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이용, 개발을 재촉해서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즉, 현대적 위기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① 이건 2차적인 원인입니다.

5. ②
A를 B와 같은 구조로 '간주하고'
쉽네요.

어휘문제는 직접 갖다가 넣어서 구분해보면 십중팔구는 풀립니다.
아 물론 구비, 겸비는 예외일 수도...

[6~9]

6. ①
(가) : 산새, (나) : 병든 나무, (다) : 폭포 등 자연물을 통해서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 ③
(가)의 3연 마지막 행을 보면 '십 오년 정분을 **못 잊겠네**'라고 합니다. 미련, 그리움 이런 정서겠죠?. 최소한 말 그대로 '못 잊'는 상황이라는 것만 캐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대로 대상을 못 잊고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3번 한 번 봅시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고개'라는 대목을 보면, 뭔가 가기싫어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못오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를 탄식의 고개라고 비유하겠네요.
고로 고개를 넘어가기 싫다. 현재 떠나는 이 장소에 대한 미련과 같은 '못 잊'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① 청산이 좋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② 청산 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④ ? 바로 지웁시다

⑤ 그냥 혼자래요. 외로움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의 3연에 외로움은 없습니다.

8. ③
1연에서는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왜 가는지, 가서 뭐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2연에서 뭐가 작열하고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황한다고 하네요. 그럼 왜 가는지 알아봅시다.
3연에서 '호올로 서면 / 운명처럼 '나'와 대면케 될'거라고 이야기하네요. '나'와 대면하고 방황한다? 자아성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3번이네요.

9. ③
'거기'는 마찬가지로, '알라신만이 ~ 방황하는' 곳이네요. 알라신 혼자만 있어요. 뭔가 휑한? 그런 공간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다)의 '밤'은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라신만이 방황하고 있는 '거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10~12]

>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 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추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싹이 텄다고도 볼 수 있다.

화제에 대한 감을 잡기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미괄식이네요. 현대 사회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현대를 정의하고, 전체주의 등을 끌어옵니다.
이거 파악하고 마지막 줄에 주목해봅시다.
키워드는 '현대 사회론', 그리고 화제까지 언급해주고 있어요.
화제는 '현대에 대한 현대 사회른의 관점 : 전체주의와 대중 사회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봅시다.

그런데 아마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부정적 유산이 계속 전승된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봅시다.
현대 사회른의 관점 : 전체주의와 대중 사회의 관계'라는 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실전에서 바로 떠올리기는 힘든 사고과정입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키워드와 화제를 잡는 연습이니까요.

현대 : 1차 세계대전 ~ 현재
- 사회변동, 대사건 특이함 -> 현대의 위상, 의미 발견 가능
- 파시즘, 나치즘 = 전체주의 = 거대 관료조직, 국가 체제가 군림 -> 전승
- 현대 사회론 : 전체주의 체제 발흥 원인, 사회적 결과 - 대중 사회와 연결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 3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파노라마**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현대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총 3가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네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2차 대전 후 : 과학 기술 발전 -> 자본주의
- 선진 자본주의 : 탈산업사회, 이데올로기 X
- 사회주의권 : 자본주의 모순 극복 노력 -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 생산 수단 국유화
- 제 3세계 : 정치적 민주화, 사회 체제 변혁

= 공생과 갈등
대중 사회 즉,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네요.

>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추이를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종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 3 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잡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현대 사회(=자본주의 사회)를 고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군요. 1문단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된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지문은 항상 일정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날 : 자본주의 사회 = 불평등, 독점 O, 불균형, 모순 O
-> 사회주의 체제 붕괴, 제 3세계도 미래 밝지 X
∴ 관료 조직화 - 대중화 속 인간 주체성 상실, 인간 소외 발생 (부정적)

주목해야할 점 : 화제와의 연관성

>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랠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황의 징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간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웬 구조 기능주의에 마르크스? 하지만 역시나,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고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화제로 연결됩니다. 잘 기억해둡시다!
원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체주의 사회가 나오고, 관료 조직화 -> 대중화(대중 사회)로 변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며 현대사회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현대 사회론이 결국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한

다는 점을 못박아주고 있습니다.

잘 캐치합시다.

>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 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현실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 '정녕 희망은 없는가!'라는 느낌으로 물음을 던지고 있네요. 부정적인 현대 사회를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화제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숨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있는 화제 혹은 키워드의 자그마한 가닥이라도 잡지 못하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숨어 있는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현대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원인이 전체주의이고, 그럼 이 전체주의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10. ⑤
3문단 마지막 줄에서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 자리잡고 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료 조직화가 있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전체주의 잔재로 부정적이다. 라는 현재 상황 고찰 정도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즉, 현재 상황이 이렇다. 미래는 진짜 노답인 거냐? 이런 식으로요. 전망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 꼬라지를 보니 영 말이 아니다. 까지만 있지
'고로 미래도 노답일거야!' 라는 등의 미래를 제시하진 않아요.

11. ⑤
결국 화제, 키워드에 대해서 묻는 거죠. 본문에서 현대 사회론은 현대 사회를 문제가 있다고 보았죠.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요. 고로 이런 말이 그대로 박혀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결과적으로 키워드를 묻고, 그 키워드에 관한 화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으란 거죠.

12. ①
어휘는 스스로 해봅시다.

[13~16]

13. ⑤
(가)는 '임'이라는 대상을 노래하는데, 그는 평화를 좋아하고 자비를 좋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나)는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조바심쳐도 굳게 닫힌 돌문 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화해(화합)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는 '그'라는 대상을 노래합니다. 역시나 뭐 '순리로 합칠 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지양하고 화합, 화해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니냐? 왜 화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단순히 싸우고 푸는 그런 화해가 아닌, 대상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 나아가 화합하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어루만질 때 사라지겠다는 구절은, 당신이라는 대상과 만나 '화해'한다면(화합, 갈등 X) 그 때 기다림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대상과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것은 화해의 세계를 동경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④ 사랑의 성취를 낙관한다? 사랑의 성취까지는 뭐 다들 임을 그리워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낙관은 틀렸습니다. 나는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러지는 않죠?

14. ④
'가치 = 무가치'일까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에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으로 치환해봅시다.
그럼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겠죠? 천국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럼 아무튼 가치 없는 것 ->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할텐데, 이건 엄연히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하는 거죠.
무가치를, 변하기 전인 뽕나무로 간주하고, 가치를 바뀐 후의 대상인 산호로 간주해봅시다.
뽕나무에서 산호가 되도록 사랑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네요.
이건 결국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나요? ㅋㅋ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화자는 그걸 바라고 있죠. 그렇게 되도록 사랑을 받아라! 합니다. 따라서 화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③ 2번이랑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라 하니까요. 고로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선지입니다.

⑤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의 사랑을 받으면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문학을 풀 때 텍스트 그 자체로만 보고 풀린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내용이 그렇게 쉽지도 않

죠. 하지만 풀이는 본문 내의 텍스트로 전~부 풀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을 포함해서 그 전후 구절까지 살피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습니다.

※ 문학에서 <보기>없이 해석할 때는 텍스트 그 자체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 때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대목과 그 대목을 둘러싼 맥락입니다.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가?' 이걸 따지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 ②
'~ 아실 이'를 위해서 밑줄 친 것들을 고이 감추었다가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을 위해서 간직하는 시어가 정답이 되겠네요.
촛불도 '당신'이 오는 날까지 간직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역시나 텍스트 자체만 보고 풀립니다)

16. ⑤
나머지는 전부 '나'인데, 정한 몸알은 '그'를 지칭합니다.

④ 끄나풀도 결국 '나'가 되면 안되는 모습이기에, 지시 대상은 '나'입니다.

2주차

[1~4]

> 역사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도 컸던 것 같다. 사회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과 정치가 현대와 같은 복잡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마치 사회는 개인을 위해 있으며, 개인이 사회를 주인들인 것같이 생각되어 왔다.

키워드 잡읍시다. '개인', '사회'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화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정도이겠군요. 실제로 개인이 크냐 사회가 크냐, 옛날에는 개인>사회 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옛날 : 개인 > 사회
- 사회 구조 = 개인 중심
- 복잡 사회 X(산업, 정치)
- 사회 = 개인을 위해, 개인 = 사회의 주인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영국을 출발점으로 삼는 **산업 혁명**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사회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사회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소리를 하네요. 역시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눈여겨 볼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 / 현대 사회에는 ~ 이런 식으로 진행되네요. 그리고 사회>개인인 이유를 예시와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잘 봐줍시다.

현대 사회 : 사회 > 개인(사회 중심)
- 산업 혁명 : 경제의 사회성
- 프랑스 혁명 : 정치적 사회성

주목해야할 점 : 화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시간의 흐름, 예시 등장

> **19세기 중엽**에 탄생된 여러 계통의 **사회 과학**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 중심 체제로 변한 것을 실감케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현상같이 느껴졌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든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굳어졌다.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때의 '우리'라 함은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세기'라는 시대와 함께 계속 옛날 VS 현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단계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시대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의 차이점이 비교/대조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내용정리 들어갈게요,

19세기 중엽 사회과학 : 사회 중심 체제
옛날 : 개인 중심, 사회 부수
현대 : 사회 중심, 개인 부수
-> '우리'가 살고 있음(정치, 경제 등)

> 현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당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이며 개인은 의미가 없다든지,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두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옛날과 현대의 '개인 VS 사회' 구도를 부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개인과 사회 둘 중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네요. 역시나 키워드와 화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니체 : 개인의 존엄성, 가치 주장
사회 VS 개인 : 대립 = X
사회 - 개인 = 상호작용 : 개인 속에서 사회 발견 + 사회 속에서 개인 발견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와 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전개 + 글쓴이의 주장 + 양측의 입장 반박(절충)

>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원자와 물질의 역학적 관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원자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다면 원자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존재성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다 설명될 수는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세포와 유기체의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생명적 존재를 위한 생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스펜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나 생성의 과정에 그치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 가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발전과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퍄퍄 대놓고 아까 우리가 잡은 키워드 + 화제를 문두에 던져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맛에 키워드 찾고 화제잡지 ㅋㅋ~~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입장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러나~ 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로 내용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은 지문의 구조를 연습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95년도에 출제된 문제) 자체를 풀 땐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1번 문제가 그나마 지문의 흐름을 캐치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오답 선지가 너무 개소리라 허탈할 정도입니다.
대신 키워드 + 화제 잡는 연습하는 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도 요즘 수능은 구조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어야 하니 그걸 연습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킹치만.. 이렇게라고 하지 않으면 지문을 봐주지 않는걸..~~

1. ④
사회 VS 개인 뭐가 우위다! 이렇게 보면 안되고 '상호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① 문제해결..? 화제도 모르는데...? 지웁시다.

② '개인 - 사회'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쓰는지는 안 나와요.

③ 현대에는 사회가 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비교? 어림도 없지 ㅋㅋ

⑤ 구체적 현실 안나와요. 그냥 철학자 입장 살짝 언급하고 앞에서 언급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적 관계'에 대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2. ④
키워드! 화제! (그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죠? ㅎ

3. ②
어휘문제는 스킵합시다. 틀렸다면 스스로 사전 찾아보기

4. ①
(라)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재반박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은 '상호 작용'이죠. 그리고 사회>개인 / 개인>사회라는 주장을 각각 반박하고 있어요.
그럼 반박 대상이 잘못되었다! 왜 쉐도우 복싱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1번이 제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② 사회>개인이라고 주장하네요.. 이미 글쓴이가 비판 제대로 쑤셨는데 이미 비판당한 주장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③ ?????????????????????? 갓직히 이거는... 그냥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④ ?????????????????????? 2... 이게 뭡니까... 갑자기 국뽕? 개소리죠.

⑤ 개인-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화제만 잘 잡아주었다면 편하게 지울 수 있겠죠.

[5~8]

5. ⑤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시 옛날 문학이 뚝배기 터뜨리는 데에는 선수네요.
그치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첫 번째 줄에 주목해봅시다.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
서로에게 무관심한(서먹한)상황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라는 대목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인간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라)는 죄다 아내의 물건을 갖고 노는 등 아내(타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 ②
‘아내’와 대화는 안합니다. 아내가 없는 집 안에서 혼자 헛짓거리 하고 놀고 있죠.

① (나)에서 ‘돋보기를 꺼내들고 ~’ (다)에서 ‘~ 가지 각색의 화장품 별들을 들여다본다’와 같은 대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나)에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 내 오락이다’라는 대목을 통해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라)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⑤ 집안에서만 돌아다니죠. 아내방, 내방, 이불 속 이런 식으로요.

7. ④
아내 화장품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해요.

8. ⑤
‘나는 ~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한다는 부분에서 베개와 ‘나’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나는 ~ 베개 같은’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참 ㅋㅋ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기엔 괜찮은듯합니다.

[9~11]

지붕은 집이 위치하는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붕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지역의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크기는 **처마**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처마의 깊이는 처마 폭에 의해 결정되는데, **처마 폭**은 도리로부터 지붕 끝까지의 너비를 말한다. 처마가 깊다 깊지 않다 하는 것은 기둥의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하여 하는 말이다.

지붕, 그중에서도 처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지붕, 처마, 환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화제는 환경과 지붕, 처마의 관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처마(지붕)이 어떻게 구성될까?, 특히 '치마 폭'이라고 구체화시켰으니 '환경에 따라 치마 폭이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푸실 땐 키워드 잡고 맨 처음 이야기한 화제만 잡으셔도 됩니다.
'환경에 따라 치마 폭이 어떻게 될까?'라는 화제는 사실 약간 사후적인 사고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 번에 생각해내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치만, 키워드를 바탕으로 화제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시다.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지붕 :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
- 크기 : 처마의 깊이 설정
- 처마의 깊이 = 처마 폭에 결정
- 처마 폭 = 도리부터 지붕 끝까지 너비,
- 처마가 깊지 X = 기둥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태양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 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대략 북위 38도선 부근에서의 하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약 70도의 각도를 지닌다. 중천에 뜬 태양이 이글거리며 뙤약볕이 쏟아진다. 그러나 깊은 처마가 차양이 되어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안이나 대청에서는 나무 그늘 밑에서와 같은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끼게 된다. 동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대략 35도 가량이다. 낮게 뜬 해가 따뜻한 햇살을 방속 깊숙히 투사하여 준다. 따뜻해진 공기는 깊은 처마의 삼각상대에 머무른다. 방의 열을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빼앗아 가려고할 때, 이 삼각상대의 따뜻한 온기가 상당한 저항 작용을 하여, 그만큼의 훈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날씨(환경)에 따라 처마폭을 깊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니까 처마를 깊게 잡는답니다. 그냥 화제 잡고 쭉 이어나간다는 느낌만 받아주시면 돼요.

처마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건축 자재의 취약성과 생활 관습을 들 수 있다. **목재**가 집을 짓는 자재의 중심이 되던 시절에는 습기에 약한 목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 적인 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마는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처마를 깊게한 이유가 또 제시됩니다. 역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한 번 가볍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담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
- 목재 집, 농사 - 곡식 저장, 작업장

이렇듯이 **자연 여건 및 생활 관습이 반영된 처마**는 우리나라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농가의 자그마한 살림집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규모가 큰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를 가지게 되었다. 기와 지붕은 초가 지붕의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며, 처마 구성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곡선 모양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형태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와! 구체화된 화제를 대놓고 던져줍니다.
환경이 반영된 처마 모양!
처음 키워드를 바탕으로 뽑아낸 포괄적인 화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어내려 가면서, 화제를 구체화시키셨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 화제를 명확하게 잡아냈다면 완-벽...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수능은 한참 남았으니까 천천히 연습해봅시다. ~~(아십세기와 피램과 함께...)~~

내용 정리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구체화된 화제를 캐치해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주목해야할 점 : 화제의 구체화(확정)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화제를 찾기 쉬웠고, 점점 뒤로 갈수록 화제가 뚜렷해지는 구성입니다.
저는 화제, 구조무새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골라왔습니다.
지문이 쉽다고 넘기지 마시고 부디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 ③
지붕, 그 중에서도 처마 폭이 왜 깊어지는지 날씨와 생활환경(농사 등)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한옥의 특징? 건축 양식? 둘 다 아닙니다.

② 건축자재 분류,,? 가볍게 지웁시다.

④ 종류에 따른 설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⑤ 시대에 따른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0. ②
집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키워드와 화제를 잘 잡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환경에 따른 처마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처음 잡았던 화제도 '환경과 지붕, 처마의 관계'로 집의 규모와는 아~무 상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③, ④, ⑤ 모두 날씨나 생활 양식과 같은 환경과 관련한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 ②
어허.. 역시나 화제네요... 환경에 맞춰서 지붕(처마)의 형태가 나타난다(깊게) 쉽습니다.

① 지붕의 크기겠지요?

③ 지붕의 재료와 보온 상태는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처마 폭이 깊으면 추울 때 따뜻하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이겠네요. 역시 화제만 잘 잡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④ 재산상태? ㅋㅋ 헛소리네용...

⑤ 치장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왔나요.. 역시나 헛소리

[12~16]

12. ②
나 죽으면 칼머리나 들어주어, 나를 죽여 내어 놓거든 ~~이런 식으로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단념한 채로 서방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 ②
'저 늙은이 성질에 괴변이 날 테니'라고 짐작하고 속인다고 합니다. 장난(?)치고 있네요. 해학을 통한 긴장이완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14. ①
내일 죽게 생겼는데 서방님 안부부터 묻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② '㉠을 근거로'입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을 어떻게 ㉠을 근거로 알 수 있나요?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지문과 문제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실망감은 아니지요

④ 자신의 죄를 고백...? 헛소리인거 아시죠?

⑤ 죽는 거 체념하고 있는데 구해줄거라 믿는다구요? 심지어 ㉠에는 그런 믿음이 일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15. ⑤
할 말이 있지만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춘향이 어머니가 왜 말 못하냐! 나 때문이냐? 라고 아니꼬워합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죠.

추가로 이후에 마나님 말씀 곡해말라는 말을 통해 적어도 반어법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불만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진심 아닌거 알지?'라는 식으로 돌려서 달래는 느낌이죠? 맥락 상 캐치합시다.

③ 역시나 뒷부분의 곡해마라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굳이 오해하지마라며 당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춘향이 어머니가 찐텐으로 짜증내니까 달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 ③
집어 넣어보면 바로 맥락상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문제를 풀 때는 우선 갖다 끼워보세요. 그럼 답이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오답을 완벽히 걸러낼 필요까진 없더라도 맥락 상 정답을 유추해낼 수는 있어야 해요. 그것만 연습해봅시다.

3주차

[1~4]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조작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觸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키워드 먼저 뽑읍시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 숭배심 정도가 눈에 보이네요. 그럼 키워드와 관련된 화제는? '고대 조각품을 감상하는 자세 - 숭배심(신성함, 거룩함), 초월적인 느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서양을 나누었으니, 동양과 서양의 고대 조각품이 차이가 있나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숭배심, 초월적인 느낌은 공통될 것이구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봅시다.

고대의 조각품 : 종교적 이상, 숭배심, 초월적 느낌
감상할 때 미적 정서 촉발 O, But, 후대(<->고대)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와 화제 찾기(늘 그랬듯이)

19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미로의 비너스' 상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발견 당시 이것은 굴 안의 북쪽 벽 앞에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 주위에 토기(土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리스 시대의 인체조각상은 동양의 불상처럼 신정에 모셔졌으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조각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의 조각품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예시로 조져줍니다. 서양의 고대 조각품 사례 하나 들어주고, 숭배적 대상이었다 설명해주고, 동양의 불상과 비교해주면서 공통점 잡고! 막판에 현대와 감상 방법이 다르다는 점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화제 잡고, 1문단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준다는 점을 파악하셨다면 굉장히 잘 읽으신겁니다.. 이미 구거황..

미로의 비너스 상(서양, 인체조각상) = 종교적 숭배의 대상(= 동양의 불상) : 미적 정서 X(숭배, 초월적 느낌 등)

주목해야할 점 : 1문단과의 연계(구조+내용)

이 조각상에 나타난 그들의 **인체 탐구 정신**은 지극히 사실적(事實的)이면서도 이상화(理想化)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서구 미술**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 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미술가들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게 한 불후(不朽)의 사상인 것이다.

1문단에서 언급한 지점들,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던 점들 싹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정말정말 깔끔하게 나와요. 20세기에도 이런 좋은 지문들이 있답니다.
아무튼 잘 찾았으니 화제 생각해주면서 동양 VS 서양의 차이점까지 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서양 : 인체탐구, 주된 대상 = 인간(<->동양 : 자연 표현)
- 황금비례 -> 인체탐구 = 신의 창조 비밀 O 간주
∴ 예술 = 인간 모방

주목해야할 점 : 앞 문단과의 연결고리 + 1문단에서 파악한 화제와의 연결

한편, **동양**의 화가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산·물·나무·동물·곤충·꽃 등과 같은 자연의 물상을 단골 소재로 삼았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생(寫生)**이라고 일컬어 왔다. 사생은 산수나 화조(花鳥)처럼 자연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앞에서 동양 VS 서양 구도 각 살짝 잡아주고 서양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바로 동양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화제 한 번 다시 봅시다.

'고대 조각품을 감상하는 자세 - 숭배심, 초월적인 느낌'

서양은 인체를 묘사하여 신의 창조 비밀을, 동양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합니다. 들 다 감상할 때 신성한 느낌을 갖고 있겠네요. 신의 창조 비밀이든, 인간의 본성이든 나름 숭배(?)적이고 신성, 거룩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미술이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의 미술은 얼핏 보아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정신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동양 미술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언급해주고 동양과 서양의 대립 구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르지만,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같은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하네요. 내용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화제를 뽑는 것부터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푸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문 자체가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다는 점에서 분석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 맞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틀리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지문을 꼼꼼히 다시 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1. ④
정확합니다. 인체 탐구를 통해서 신의 창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죠.

①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을 통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생'을 설명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② 고대 조각품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뭄론 우리가 그것을 감상할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나온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후대에 와서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③ 다릅니다! 서구는 인간 동양은 자연을 표현했어요.

⑤ 인체를 소재로 삼은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망? 그런 얘기는 1도 없죠.

2. ⑤
막줄에서 다 드러났죠?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 가볍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만 실수 없이 잘 읽으셨다면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②
㉠은 결국 고대의 조각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태도를 묻는 것이죠. 즉, 중요한 건 상징 대상이 숭배심을 전제한 것이고 감상할 때는 초월적인 느낌(거룩함, 신성함 등)을 받았느냐 입니다.

종교적 숭배 대상인 본존불을 보고 '멋있다', '화려하다' 따위의 미적 정서가 아니고 '자비로움'에 숙연해집니다. 초월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① 할아버지는 숭배 대상이 아니죠? 조상신도 아니고..

③, ④ 표현 대상이 숭배심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느낌을 받지도 않습니다.

⑤ 비너스 상이니까 숭배심을 전제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미적 정서에 기반하여 감상합니다. 초월적인 느낌이 아니네요.

4. ⑤
자연과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감상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골라야겠습니다. 단순히 '와 멋지다! 예쁘다' 이런 감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5번 선지는 자연에 곁눈 들이고. 그(자연)의 기쁨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네요. 감상을 넘어 자연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②, ③, ④ 자연을 그냥 감상하고 있습니다. 2, 3번은 그냥 와! 자연 예쁘다! 자연 ㅆㅅㅌㅊ! 이런 감상에 그치고, 4번은 그냥 자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8]

5. ②
길동 모가 첩인지 본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요.

① 끝부분에서 엄마와 이번 길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그것을 허락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③ 임종 직전에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라면서 길동을 못 봐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길동이 오고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죽고 난 이후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⑤ '길동이 거짓 탄식 왈' ... 구라치고 있습니다.

6. ③
다른 곳들은 전부 좋은 터들인데 반해 ㉢은 험악한 곳입니다. 안 좋은 장소라는 것이죠.

7. ③
길동이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를 보면, 길동과 어머니가 서로 울면서 재회하죠? 길동이 어머니를 버렸으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고로 확인 가능하네요.

① 그냥 길동이가 울고 있습니다..

② 마찬가지로 그냥 울고 있어요.

④ 형이랑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네요.

⑤ 어머니와 재회하고 버리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한 이후에 그냥 묫자리 알아보는 대목이죠?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8. ③
부모와의 관계를 노래하는 선지를 찾아야겠습니다.
3번에 '어버이 그린 줄은 만코 만코 하고 하고'를 보면,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죠.

① 기다리지 말래요.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대목으로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네요.

④ 고온 '님'이네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⑤ 자연 밖에 안 나오네요. 걸러줍시다.

[9～13]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과 과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철학은 병신이야!'하다가 뒤에서는 사실은 아니다~ 하고 뒤집고 있죠. 키워드는 그럼 철학과 과학이 될 것이고 화제는 둘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생략할게요.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시나 철학과 과학의 대립구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럴 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과학 : 정확한 공식화 가능, 가설 -> 기술, 진리 세계 점령지대
철학 : 미지,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설, 진리 탐구 최전선, 불확실
우리 삶 = 지식 + 기술의 안전지대(탐구 X)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개념의 비교지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앞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조져놓은 걸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철학 VS 과학 중에 과학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과학 : 분석적 기술(<-> 철학 : 종합적 해석)
- 전체 -> 부분, 모호 -> 확실
- 가치, 이상적 가능성, 궁극적 의미 X
- 현상, 작용, 성질, 과정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과학과 대비되는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철학 ㅆㅅㅌㅊ!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 문단과 이어서 각각 과학과 철학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개념의 대립구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셨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글도 짧고 내용이 비유적 표현인 것만 빼면 어렵지도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테지만, 역시나 지문을 대하는 태도를 익히기에 좋아서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철학자
- 사실-경험 관계 확정 -> 종합적 해석
- 목적 비판, 조절(<-> 과학 : 관찰, 수단 고안)

9. ⑤
역시 두 개념의 대립구도를 잘 잡아주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요즘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단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키워드 찾기 연습하는 용도로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존 VS 현상이라는 대립구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현상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과학이겠죠. 철학은 종합적 이해, 가치 등을 찾는다고 했으니 현상 그 자체 이상의 것입니다.

①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②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철학은 종합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네요.

③ 과학은 현상, 작용 등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철학은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하여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 과학이 사실이라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3, 4문단에서 과학과 철학의 속성들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비교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봅시다. 마지막 문단 첫 부분에서 '철학자들은 사실적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찾는다고 했죠. 그럼 앞에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과, 철학 VS 과학의 구도를 알고 있다면, 결국 사실적 기술은 앞에서 말한 과학의 속성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잘 캐치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자주하는 페

러프레이징과 비슷한 느낌이죠. 뿐만 아니라 3문단에서 과학은 현상, 작용 등에만 주목하고 이상적 가능성 및 가치 등은 관심 없다고 했다는 점을 통해 과학이 '사실'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10. ④
㉠ 바로 뒤 문장에 바로 나와 있죠.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① 철학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는걸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② 지혜를 탐구한다고 했지 상식과 혼동한다고는 안했습니다.

③ 이건 과학이죠.

⑤ 철학자들이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11. ⑤
철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을 추구하고, 과학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을 연구하며, 일상생활은 연구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광맥은 불확실합니다. 광부는 이미 발견해놓은 광산길로 들어가서 채굴하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완성된 물품들만을 사용하죠. 광맥을 찾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나름의 탐구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탐구가 아닙니다.

② '철로를 따라'가 틀렸습니다. 철학은 불확실한 길을 찾아 나가야하는데, 철로는 이미 정해져있죠?

12. ③
앞에서 철학은 불확실한 영역을 탐구한다고 했고, 뒤에서 철학은 이상적이고 가치 이런걸 계속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을 연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학문제 같네요~~(허용 가능합니다)~~. 그래도 둘의 비교구도를 잡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니까 다시 풀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① 종교적 성찰은 안나왔어요.

② 철학 ㅆㅅㅌㅊ라고 했는데 회의라뇨..?

④ ??????? 이상을 탐구하는데 .... 자조적 독백은 헛소리네요.

⑤ 자아 탐구? 아니네요.

13. ①
ⓐ와 ⓑ를 보고 바로 알기보다는 뒤에서 설명하는 과학의 속성까지 알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과학은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즉, 새싹에서 확실히 도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열매가 정답이겠네요. 이 역시 현재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해설에 꼼꼼히 신경쓰기 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인 부분을 확실히 캐치했는지만 알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모호 -> 확실' 이 사실만 딱 잡고 나머지 선지를 걸러보세요.

〔14~18〕

14. ②
㉡은 그냥 형편이 어려움을 드러낼 뿐,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① 원활한 부부 관계를 보여줍니다. 중구 영감의 다정한(?) 성격을 알 수 있네요.

③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바로 넘어가셔도 좋고, 명장처럼 고퀄리티의 물건들을 내어 놓지만 고퀄의 물건들을 만드는 영감의 성격이 깐깐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15. ④
의장이 뭔진 모르겠는데 앞부분에서 그가 만들어 낸 자개장이나 귀목장에 대해서 의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개장이나 귀목장을 몰라도 중구 영감이 소목장 일을 한다는 맥락과 '만들어 낸'에 주목해서 '의장'이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만든 물건이 견고하고, 귀물이고 값이 비싸다는 등을 통해 물건의 퀄리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겠네요.

①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물건이 예술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②, ⑤ 의장은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한 표현입니다.

③ 어떤 장식이 달렸는지 뭐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죠?

16. ②
뭐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에 대답은 안하고 딴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 이후에 다른 인물의 얼굴이 벌개지고 오기가 발끈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중구 영감 성격이 지 맘에 안들면 안해준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기도 했구요.

17. ③
비싸게 팔고 해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주는 마당에 중구 영감이 자기 물건을 팔겠다고 흥정하는 장면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① 외가의 도움을 달갑잖게 여겼다고 합니다.

② ㉡에서 김 약국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 가능해요.

④ 처음에 소목일 배우러 간 게 가난해서라고 했습니다.

⑤ 역시나 소목일을 배우니까 그걸 배우러 찾아가는 장면도 허용 가능하겠네요.

18. ①
중구 영감과 정국주 마누라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국주 마누라가 해달라고 부탁한 걸 중구 영감이 거들떠도 안보고 거절한 적이 있다는 일화를 이야기할 뿐이네요. 둘이 그거 때문에 뭐 싸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② 한실댁은 겸상도 못했으니 남녀차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③ 대사 부분을 보면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네요.

④ 남들이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고 자기 소신대로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부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⑤ 일반적으로 선비가 일을 하지는 않는데,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시나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4주차

〔1~6〕

> 한국인의 **전통적 명분관**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나 상하의 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계층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명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관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그럼 키워드는 전통적 명분관(계층적 명분론, 도덕적 명분론)일 것이고 화제는 명분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설명은 계층적 명분론과 도덕적 명분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 명분관 : 계층적 명분론(사회적 역할 제한) + 도덕적 명분론(정당성)

주목해야할 점 : 핵심 키워드 찾기

> **계층적 명분관**은 사회 내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가령,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고부(姑婦)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성격에 따라 각자에게 명분을 부여함으로서 가족적인 질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분관에 따라 부모의 도리나 자식의 도리 또는 임금의 도리나 신하의 도리 등, 각자 지켜야 할 도리가 명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명분은 위아래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우 아까 찾았던 화제 그대로 연결됩니다. ez하네요 한국 전통적 명분관의 성격 중 하나인 계층적 명분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예시도 둘어주네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편하게 읽어봅시다.

계층적 명분관 : 엄격한 계층 구조 형성 -> 안정된 사회 질서 유지 = 명분 부여(가족 질서 등)
명분 : 위, 아래 모두 지켜야 함

> 이 경우 **명분이 계층적**이라 하여, 이것이 윗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압적인 현상**은 힘 있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아래의 구성원이 각각 그 역할에 따라 명분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명분을 앞세워 억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명분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보적 요구를 억누르는 **보수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계층적 명분관**은 근대로 내려오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고 붕괴함에 따라 점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태도를 부정하는 의식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층적 명분론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 문단에서 계층적 명분론을 '명분'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단에서 명분과 관련하여 계층적 명분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앞 문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계층적 명분론
- 위 관대 / 아래 억압 X : 억압 = 명분 무시에서 기인, 명분의 제약 -> 질서와 결속 확보
- 그러나 명분을 통해 자연적 욕구 억압하기도 함
- 근대 이후 타당성 잃음 but, 여전히 진취적 태도 부정 등의 면모 O

주목해야할 점 : 앞 문단과의 연결고리

> 이에 비해 **도덕적 명분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개인의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한다. 즉, (불의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든가 타협을 거부하는 선비의 강직한 정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적 명분은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비판 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당쟁(黨爭)은 경직된 명분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화제 기억하고 계시죠? 앞에서 파악한대로 이번에는 도덕적 명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제잡고 내용정리해도 충분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가서 계층적 명분관과의 비교지점도 한 번 파악해봅시다.
계층적 명분관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억압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덕적 명분관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해서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해준대요.
비교지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말만 바꿨지 지금 결국 본성을 억압하냐 지지하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까지 한 번 생각해주고 넘어갑시다.

내용정리 할게요.

도덕적 명분관 :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 기준 제시 -> 정의감, 용기 뒷받침(<-> 계층적 명분론)
- 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 but, 경직된 비판의식 = 사회적 긴장, 분열 초래(조선 후기 당쟁)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개념의 비교지점

또한 같은 시기에 **도덕적 명분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명분의 형식화와 체면치레가 성행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소홀히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리학적 의리에 집착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가 만연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실용적 관점에서 의리론적 명분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견해를 당시 실학자들의 저술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음.. 익숙한 구조네요? 앞에서 계층적 명분론도 장점 설명하고 단점(폐단?)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서술됩니다. 앞 문단에서 장점 설명하고 지금은 단점 언급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파악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그냥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요!

도덕적 명분론
- 실용적 측면 소홀
- 성리학적 의리 = 현실적 X

주목해야할 점 : 유사한 전개방식

현대의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층적 명분관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평등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오늘의 시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제 정의의 실천이나 민족 통일 등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시대의 구체적 과제가 현실적 조건에 따라 특수한 명분을 제시하여 우리를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잡았던 화제가 '전통적' 명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살펴보았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냥 '명분관'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전통적 명분관이라는 정확한 화제를 잡아주면 전통 확인 -> 현대사회 검토 및 적용 이라는 흐름까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적 명분론은 별로고 도덕적 명분론은 한 번 확인해야한다!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으니까 내용정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만 본문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덕적 명분론과 연결된다는 것은 파악해주셔야 해요!

주목해야할 점 : **정확한** 화제 잡기

1. ④
마지막 문단에서 현대에는 평등이 기본원리라 계층적 명분론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즉, 명분론의 변화는 현실인식(평등)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① 도덕적 명분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당성!

② 개인적 정의감은 도덕적 명분론과 관련된 것이지요.

③ 명분론적 세계관을 극복...? 극복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전통적 명분관을 살펴보고 그 중 하나인 도덕적 명분론은 현대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극복이라뇨?
가볍게 지워줍시다.

⑤ 대조되는 지점은 있었지만 막 상충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2. ①
출생 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지요. 훌륭한 인재가 노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남의 노비로 굴리는게 맞는것이냐? 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네요.

② 남녀의 위계질서에 대해 긍정합니다.

③ 군주에 대한 명분을 강조하네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도 나오구요.

④ 임금의 명분을 강조합니다. 위 아래 모두 각자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⑤ 자식의 명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4번 선지와 같은 근거로 풀 수 있습니다.

3. ③
㉠은 그냥 윗놈 아랫놈 모두 명분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 고로 아랫놈만 억압하고 윗놈은 널널한 게 아니다. 오히려 윗놈이 명분을 안 지켜서 억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의 희생?? 헛소리네요. ㉠이 무슨 소릴 하는지 잘 파악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② 명분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계층적 명분론의 예시로 드는 신분사회는 계속 유지되었고, 신분에 따른 명분을 지키는 게 일반적인 것이겠지요? 만약 명분을 지키지 않아서 억압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질서를 유지 못했을 겁니다. 고로 억압적 현상은 특수한 경우라고 추론 가능하겠네요.

4. ③
분수를 알아라! 이 뜻입니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뜻을 제대로 몰라도 송충이가 뭐 먹으면 죽는다 = 지 주제를 모르고 쳐먹으면 죽는다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어요.
사실 어휘문제에 가깝습니다만 속담의 뜻을 몰라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5. ①
실용적이지 못하고 허구한날 명분만 따진다는 의미네요.
1번은 싸우겠다고 말만하지 정작 거추장스러운 옷은 그대로 놔둔다는 내용입니다. 넓은 옷소매는 싸울 때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실용적이지 못한데, 그건 그대로 두고 입만 터는 상황을 비판하네요.

6. ①
어휘는 스스로 찾아봅시다.

〔7~11〕

7. ③
양 상서한테 공주를 시집보내려 하니 이미 '정씨 여자'가 있어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머리 싸매고 있는 내용입니다.

① 어떻게 포상할지 고민하지는 않죠.

② 의견 대립이 중심 화제가 아니에요. 둘의 갈등이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요.

④ 결혼 풍습? 헛소리!

⑤ 이 무슨... 둘이 사귀는 사이 아닙니다. 이미 부부도 아니고요.

8. ③
예를 갖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속어, 사투리 이런 거 없죠?

9. ①
'소녀 물으니 정씨 여자가 얼굴 재주와 덕이 다 갖추어져~'라고 말하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을 잘 읽으셨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 ②
막판에 태후가 차탄하면서 공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씨 여자를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공주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네요.

① 공주를 과신했으면 토의 없이 그냥 '우리 공주 하고싶은거 다해~' 시전했겠죠. 대화를 나눠보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11. ①
태후는 그래도 어떻게 부인 둘이 있는 곳으로 시집가냐, 공주는 정씨 여자가 덕이 좋으니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③ 각자의 상황을 합리화.,? 공주 시집 문제랑 정씨 여자를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공주는 뭐.. 시집가려는 남자가 여인이 있는데도 가는 상황을 합리화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후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한다고 보기 어렵죠?

④ 인정에도, 상식에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⑤ 시집가야만 하는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12~16〕

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 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핑~장히 친절한 지문입니다. 이십세기를 한 달 가까이 풀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무슨 소리를 할지 이미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하던 대로 갑시다. 키워드 잡고, 화제 찾으러 ㄱㄱ

키워드는 일단 사회 복지 이념, 사회 복지 방법론, 미시적 거시적 방법론이네요.
그럼 화제는? 사회 복지 이념 실현을 위한 사회 복지 방법론 - 미시적, 거시적
그러면 뒤로는 이 두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겠군요. 화제 잊지 말고 쭉 달려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풀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돼요.

내용정리 할게요.

사회 복지 방법론 : 이념 실현, 전문 지식과 기술
- 미시 : 개인에 초점 = 도움 필요한 사람들 문제의 원인 -> 스스로 해결에 도움
- 거시 : 전체적인 사회 차원 = 정부 정책 및 제도에 영향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마지막 줄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사회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체제 자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사회 체제 안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곧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임상(臨床)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 및 그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화제 잡은 것들 그대로 비교해주고 있네요. 아 ㅋㅋ 쉽다 쉬워! 내용도 별거없어요. 앞에서 설명한 미시, 거시적 방법론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준입니다. 대신! 뭐와 관련해서? ‘사회 체제’와 관련해서 비교한다는 점은 잡아줍시다.

미시적 방법론은 사회 체제에 관심 없고 임상에 초점 두고 거시적 방법론은 정책 같은 것들에 관심 있고 사회 세력들의 역동적 측면 중시한다!

내용도 딱히 정리할 거 없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주목해야할 점 : 화제의 구체화, 비교지점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사회 복지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의학, 집단역학(集團力學)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빌려 온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실천 지향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룩된 것들이다. 그 결과 사회 복지 방법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루거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사회 체제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 체제에 내재해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으음.. 앞에서 미시 거시 빌드업 짜놓고, 역사적으로 미시적 방법론 위주로 어떻게 성립했는지, 그래서 한계는 뭔지(거시적인 차원 간과) 이렇게 전개되네요. 계속 뭔가 화제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 드시나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생략할게요.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단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기형적으로 발전된 이러한 사회 복지 방법론만 가지고서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미시적 방법론 위주로 발전한 사회 복지는 하자가 있다!
왜? 본래 **이념** 달성이 어려우니까~
화제 뭐였죠?
‘사회 복지 **이념 실현을 위한** 사회 복지 방법론 - 미시적, 거시적’
크으 지려따!
사회 복지 방법론 설명하고! 현행 비판하고 있네요. 뭐와 관련해서? 이념 실현과 관련해서~
화제가 지문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점 다시 머릿속에 넣으셨죠?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주목해야할 점 : 화제의 중요성

우리는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만으로는 사회 복지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양측으로 하는 사회 복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사회 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아까 미시적 방법론만으로는 본래 사회 복지의 이념 실현이 어렵다고 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까지 스무스하게 제시해줍니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한대요. 그래야 이념 실현이 더 효과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결국 마지막까지 화제 이야기네요. 정직한 지문이었습니다.

지문 내용이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지문의 화제가 엄청 눈에 띄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제가 어떻게 지문을 둘러싸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왜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문을 넣었습니다.

12. ③
화제 잡고 흐름 캐치만 잘하셨으면 쉽게 푸셨을 겁니다.
인접학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거기서 어떤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13. ④
미시 중심으로 발전했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성공했지만 사회 체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① 1분단에 잘 나와 있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② 거시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미시는 임상 분야의 전문성 강화! 맞는 설명이네요.

⑤ 미시에만 집중하고 거시는 소홀히 해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뭐 같이 발전시켜야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기도 했구요.

14. ④
사회 체제 개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시 미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사회 복지 이념' 달성을 하는 것이 핵심 주장이죠.
사회 체제를 개혁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5. ①
복지 기관에서 상담? 이건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 서비스를 중시하는 미시적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6. ④
이것도 결국 키워드, 화제 묻는 문제네요. 미시는 임상, 거시는 정책 그대로 위에 지문 풀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위로 다시 ㄱㄱ

① 과정? 미시가 무슨 과정에 주목했었죠? 음.. 차라리 거시가 정책 입안 '과정'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거시가 오히려 맞겠네요.

② 1문단에서 사회 목지 방법론 그 자체가 모두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에요.

③ 사회 복지 방법론은 둘 다 사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미시적 방법론만으로는 이념 달성이 어렵고 둘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천도 임상 측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미시적 방법론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⑤ 입안은 거시죠?

〔17~20〕

17. ⑤
(가)에서 어머니보고 촛불을 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새 새끼들이 아직 안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새 새끼들은 어둠에 돌아오는데 촛불을 켜면 못 돌아오기 때문에 켜지 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자연물인 새 새끼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친화라고 허용 가능합니다.
(나)는 '별'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 허용 가능하네요. 물론 이 외에도 별을 통해 긍정적인 대상을 떠올리거나, 이름을 흙으로 덮는 등의 자연물 소재를 이용한다는 점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체념의 태도는 역시나 둘 다 찾기 어렵습니다. (가)에도 촛불 켜지 마라!, (나)에도 현재를 부끄럽고 슬프게 인식하고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실에 체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8. ④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는 소재입니다. 고로 어둠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으면 되겠네요.
검은 치맛자락은 밤이 끌고 오니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햇빛을 즐기는 것과 관련됩니다. 오히려 어둠과 대비되는 느낌이죠?

②, ③, ⑤ 어둠과 딱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는 소재라는 점입니다!

19. ②
별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향하는 내적 세계 허용 가능합니다.

③ 기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20. ⑤
<보기>는 결국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는'이라는 감정이 벌레에게 이입되어서 드러나네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혹시 감정이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시면 우선 문학 기초개념부터 다시 다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주차

〔1~6〕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로서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 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 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리라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술(技術)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이나 성격이 각각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대요.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이 화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를지 한 번 확인해봅시다.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조론**으로 구별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動因)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을 **탈산업 사회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관점에선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밑줄은 많은데, 크게 내용이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앞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다~ 던져주고 그냥 사례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앞 문단에서 언급한 두 관점 중 하나인 기술 결정론에 대한 설명과 변화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기술 결정론(=탈산업 사회론)
- 정보 경제
- 정보통신기술 = 변동의 기본 동인, 자율적 작용
- 서비스 중심, 정보지식, 참여 민주주의, 시민운동, 물질주의X

한편,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따름이라고 본다. 정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발전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란 〈부가 가치가 높은 정보 기술을 생산과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자본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을 정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자체를 산업화하는 양면 전략, 즉 '산업을 정보화'와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정보 사회의 미래는 탈산업 사회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장밋빛 신세계가 아니다. 즉, 〈향후의 정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보 불평등이 확대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며, 직무의 탈숙련화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고, 대규모의 다국적 조직을 통하여 정부가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이번엔 사회 구조론 관점에 대한 설명이네요. 앞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하는 정보 사회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난다고 하네요. 또, 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관점의 비교지점만 잘 잡아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관점의 비교지점

이처럼 정보 사회에 대한 예측이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망이 꼭 밝은 것만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 사회를 전혀 새로운 사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사회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갖가지 전망을 통하여 실제로 변화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간하는 한편,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보 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주체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 및 정보 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맞는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서로 다르게 정보사회를 예측하는 두 관점을 살펴보고,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야한다~ 잘 예측하려면 모형을 설계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나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냥 쓱 보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 ⑤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두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문의 화제만 잘 찾으셨다면 충분히 쉽게 고를 수 있어요.

2. ④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① 사회 구조론 설명할 때, 기술 결정론(탈산업 사회론)과 달리, 부작용도 있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②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했고, 가치관이 탈물질주의로 변한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도 변할 것이라는 부분은 추론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③, ⑤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3. ②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설명하고 비교했었죠?

①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를 비교하지는 않아요.

③ 한계점과 절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④ 생산 체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한계점 역시 없습니다.

⑤ 헛소리네용

4. ②
정부가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3문단 마지막 줄만 잘 체크하시면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④ 정보 불평등에 대한 내용 나왔었죠?

①, ③, ⑤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5. ③
지문 그대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보 사회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⑤
어휘는 스스로

〔7~10〕

7. ④
(가)는 임이 떠나는 상황에서 꽃을 뿌리고, (나)는 여러 상황 묘사(꽃맹아리가 움작거리는 등)후 너를 부른다고 합니다.

① (가), (나) 전부 객관적 대상 묘사 안나옵니다. 일단 (가)에서 임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죠?

② (가)는 이별한다고 슬프다는 시인데 자아성찰? 거릅니다.

③ 둘 다 과거시제 없습니다.

⑤ 강한 설득적 어조... (가)는 갈거면 나 즈려밟고가라! 꽃이나 뿌려줘야겠다.. (나)는 너를 부른다! 하고 있는데 설득적 어조라 뇨..

8. 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꽃은 핍니다. 그리고 깊은 눈 속에서도 꽃맹아리가 움작거리네요. 힘든 상황에서 피는 꽃은 극복의지로 허용 가능하겠습니다.

① 뿌리는 꽃 = 떠나는 임..? 아무리봐도 허용하기 어렵네요.

② 중요한 건 임이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 꽃의 외면적 속성이라고 볼만한 부분도 마땅찮네요.

③ 허허.. 거릅시다.

④ 힘든 상황에서도 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9. ⑤
발걸음 – 걸음걸음, 뿌려놓은 – 놓인, 고히나 – 사뿐히
시어 바꾸고 글자 수 조절하는 것 맞습니다.

10. ⑤
10. ⑤
너를 불러 본다고 결정했습니다.

〔11~14〕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시간의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우주론적 시간'과 '열역학적 시간'**의 두 가지가 있다. **우주론적 시간**이란 우주가 팽창(膨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며, **열역학적(熱力學的) 시간**이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그 중 시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눕니다. 우주론적 시간, 열역학적 시간이네요. 그럼 방향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는 두 시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 화제가 될 수 있겠군요.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를 통한 화제 도출

우주론적 시간, 즉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뉴턴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相對性) 이론**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상태, 즉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의 미래나 과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는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역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시간의 대칭성(對稱性)**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에서 행성 운동을 촬영한 필름은 앞뒤 어느 방향으로 돌리거나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은 것〉이다. 따라서 뉴턴의 법칙만 가지고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도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정직한 구조네요. 아까 본 지문이랑 비슷합니다. 키워드 던져주고, 그것에 대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시 각각 설명해주는 방식이네요. 똑같이, 그 중 하나인 우주론적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 내용도 등장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결국은 시간과 관련되어있다는 점 기억해줍시다.

우주론적 시간 : 우주에 적용
- 뉴턴 : 위치, 속도 -> 미래, 과거 상태 O = 시간의 방향 알 수 X, 시간의 대칭성
- 아인슈타인 이론도 시간의 방향성 해결 X

한편, **열역학적 시간**이란 열역학 제 2법칙으로 설명되는 시간을 말한다.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르면 자연 현상은 에너지가 무산(霧散)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또는 방 안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다가 창문을 열면 밖으로 더욱 퍼져 나가는 것처럼〉, 자연은 최대 무질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한 사례에서 관찰되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비가역적(非可逆的)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연 현상의 진행 방향이 곧 열역학적 시간의 방향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실제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해 준다.

열역학적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할 부분은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해준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우주론적 시간은 시간의 대칭성은 설명했지만, 방향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역학적 시간은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네요. 차이점입니다.

열역학적 시간 : 열역학 제 2법칙
- 자연현상 : 에너지 무산 =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 최대 무질서 상태를 향함 = 돌이킬 수 X : 비가역적 시간
∴ 시간의 방향성 설명

주목해야할 점 : 두 개념의 차이점

이러한 열역학 제 2법칙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법칙은 생명체가 탄생하여 질서 있는 조직체로 진화되어 간다는 것, 즉 진화론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단순한 생명체가 좀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질서의 정도가 오히려 증가(增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프리고진은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진화론과 열역학 제 2법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 곧 최대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비평형 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자연계는 열평형 상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물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지막 상태는 옅은 색 평형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을 관찰하면 잉크가 퍼져 나가면서 만드는 무늬와 구조〉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평형 상태의 예이다. 진화론도 이와 같은 비평형 상태가 지속(持續)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열역학 제 2법칙은 진화론과 모순 없이 양립하면서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열역학적 시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 2법칙을 통해 내용 전개가 되네요. 진화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열평형 / 비평형 상태라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열역학적 시간이 시간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준다며 마무리됩니다. 새로 등장한 개념과 앞에서 나온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고민하면서 읽어봅시다. 또, 열역학적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계속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화

제를 갖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

열역학 제 2법칙(열역학적 시간) : 진화론과 모순
- 단순 -> 복잡 = 질서 증가

열평형 상태 : 최대 엔트로피 지향(무질서를 향함)
비평형 상태 : 엔트로피 증가 최소화(무질서 최소화)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 발생 가능
=> 시간의 방향성 설명 가능

> 그런데 이 열역학 제 2법칙을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 무한히 지속된다면,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의 상태, 즉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되어 더 이상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열사(熱死)'**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열사의 상태가 시간의 최종 도착점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가정에 불과할 뿐, 실제 우주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오오 열역학적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은 설명했지만, 이를 우주에 적용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 이처럼 열역학 제 2법칙도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만 설명력을 가질 뿐,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뉴턴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도 또한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설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과 함께,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시간의 방향성과 함께 두 가지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우주에서의 시간의 방향성은 둘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과학의 숙제라고 하네요. 간단합니다.

11. ①
뉴턴 법칙이 설명하는 시간의 대칭성입니다. 시간이 어디로 흐르는지 앞 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뒤에 행성의 운동을 예시로 들고 있네요. 사실 지문에서 예시만 잘 보셨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습니다.

12. ④
지문 전체의 화제는 일단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두 가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그 중 하나인 열역학적 시간을 열역학 제 2법칙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①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② 예외 사례는 없었죠.

③ 시간의 대칭성은 우주론적 시간에서 등장합니다.

⑤ ???? 상대성 이론은 우주론적 시간, 열역학 제 2법칙은 열역학적 시간에 관한 개념인데,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대조하면서 모순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13. ②
원래는 무질서를 향해서 가는데,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지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14. ③
온도와 밀도..? 무질서, 시간의 방향성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뜬금 없네요.

〔15~18〕

15. ③
책임만 지는 것이었으면 수원집에게 숨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숨기는 것을 보고 절망할 이유도 없죠. 남이 탐내거나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16. ①
덕기는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맡기고 있어요. 덕기는 욕심이 없습니다.

② 다시 일어나도 폐인과 다름없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덕기 보고 맡으래요.

③ 너 말고 맡길 사람이 없겠냐!하고 다시 가져가지는 않죠 ㅋㅋ 그리고 열쇠 하나에 집안과 덕기의 운명이 달렸다며 그걸 갖고 사당을 꼭 지키라고 하기도 하며, 열쇠만 덕기한테 맡겨놔도 편히 눕겠다고 해요. 이는 덕기를 믿는다는 의미로 허용 가능하겠습니다.

④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라고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⑤ 졸업 한 달 남았다는 데 공부가 중요하냐며 꼽줍니다.

17. ①
집안 겁나 중요하게 여기죠? 집안 때문에 덕기한테 열쇠 억지로 억지로 맡길려고 하네요.

② 공부하고 싶다는데 열쇠나 맡으랍니다.

③ 덕기 아버지한테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전보 못 치게 한 게 싫다 이정도인데 이걸로 이기적이라고 간주하긴 어렵죠.

④ 죽기 직전까지 집안 일로 머리 싸매고 계십니다.

⑤ 돈에 결벽증이 있는지는 안 나왔어요.

18. ②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할 요소들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수능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 부분들을 놓치고 읽으면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연습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사건, 배경(시공간 등)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덕기가 뭘 하면서 노는지 등 취미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마 졸업하겠다고 공부한다는 것을 취미로 보시진 않았겠죠..? 인물 간 관계나 인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파악했다면 충분히 쉽게 푸셨을 겁니다.

① '재가 왜 저럴까..' 열쇠를 둘러 싼 인물들 간의 대립이 드러나는데, 그에 대한 인물의 심리상태를 물어보는 거네요. 중요하죠.

③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④ 앞부분에 전보가 막혔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장면 외의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겁니다.

⑤ 역시나 묘사되는 장면, 드러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6주차

〔1~4〕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화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개별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정의도 그렇고, 세계화와 비교되는 국제화도 전부 '개별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럼 얘에 관한 설명이 곧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네요.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추측한대로 이놈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야겠죠? 보니까 뭐 상호 의존 관계 커지고, 초국적 금융 자본 서앙해서 그게 각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대요. 별거 없네요. 화제 잡고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지문이 쉬운건 안비밀)~~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너무 간단합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왜? '개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결해주니까!입니다. 간단하네요. 아까 잡았던 화제 기억하시죠?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아까는 경제 영역의 세계화였고, 이번엔 문화 영역의 세계화입니다. 화제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다시 안 말해줄거니까 기억 안 나면 위에 보고오세요 ㅎ). '개별 국가'의 각종 양식들이 전 세계로 퍼진대요. 그래서 그걸 세계 시장을 통해 모두가 이용하고 있구요. 근데 한편으로는 선진국 문화에 종속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세계화'라는 사실 다 아시죠?〉**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 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앞에서 화제를 잡고 지문을 잘 읽으셨다면 이 지문에서 바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한국이라는 '개별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의 차원에서 모두 살펴보고 있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화를 개별국가와 엮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의 예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 읽으셨을 때 이 사고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구거황이십니다. 못하셨다면 화제를 조금 더 잡고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 대중문화 유입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면서 각각 경제, 문화 영역의 세계화를 얘기하네요. 앞에서 빌드업 오지게 짜놓고 팡! 터뜨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설명하고 한국 예시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하면서 대안 제시하고 있네요. '개방적 민족주의'하랍니다. 종속 거부 평등 사랑 별거 없네요.

이 지문은 꼭 사고과정을 한 번 답지랑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생각하는 부분과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문의 구조는 굉장히 깔끔하고,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꼭 지문 분석이라도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⑤
엥 각국의 문화가 유통되고, 한국의 예시를 설명할 땐 민족 문화가 변형된다고 했습니다.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죠.

2. ②
세계화 쭉~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세계화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하면서 대안(개방적 민족주의)제시합니다. 즉, 세계화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① ???? 개소립니다. 세계화를 대하는 자세로 개방적 민족주의를 제시했을 뿐, 민족주의가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 약간의 배경지식이긴 하지만, 민족주의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대되는 세계화가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소리가 애초에 모순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③ 국가 이념 아닙니다. '전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인걸요.

④ 이득도 되고 손해도 보고 하는거죠.

⑤ 그럼 문화 종속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합의를 통해 세계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3. ④
IMF, 할리우드 영화 등 정말 많은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4. ⑤
세계화를 대하는 자세로 개방적 민족주의를 해야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① ? 선진국 시러욧! 빼애애액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 영역에서 세계화가 각국의 문화를 선진국에 종속시킨다는 부작용도 있다 정도죠.

② ,,,,? 생략할게요..

③ 딱히요? 그냥 얘네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정도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국적 조직 짱짱맨! ㅆㅅㅌㅊ! 이런 건 아니에요.

④ 글쓴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9〕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쿵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잇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으음 물질적 풍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모든 인간이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님 쿵 족 보셈! 공유하면서 잘 먹고 잘산다.' 하면서 사례 가져옵니다. 그거 언급하고, '고로 먹긴 해야 하지만, 얼마나 쳐먹을지는 문화마다 다르다(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가 핵심 주장이자 화제가 되겠네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 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 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 대조되는 케이스를 또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별거 없네요. 사례를 중심적으로 읽고 앞이랑 어떻게 다른지 대충 파악만하고 넘어갑시다.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북아메리카의 콰큐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의 축적, 즉 물질적 풍요를 이번엔 다른 목적(권위 획득)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또 언급합니다. 사례 빌런이네요. 사례들을 통해 화제와 관련된 점들을 찾으면서 쭉 읽어줍시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 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부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또또 예시.,, 슬슬 지겹지만! 계속 사례를 통해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상기해봅시다.
'문화마다 다른 물질적 풍요'라는 화제가, 지금 진짜 부의 축적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례와 물질적 풍요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사례로 구분됩니다. 이 비교지점 잘 파악합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재진술이네요. 앞의 내용들 정리하면서 화제 언급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건 문화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평가할 수는 없다(상대적이다)는 내용입니다.

지문 전개 방식이 사실 지금 스타일과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기출에서도 이 '사례'들이 여전히 중요해요. 지문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사례를 통해 이해시켜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개념과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나는 건 18수능에 부호화 지문이네요. 아무튼 사례를 통해서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화제를 잡고 지문의 흐름을 캐치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기 좋겠다 싶어서 이 지문을 선별했습니다.

5. ②
물질적 풍요라는 것은 문화마다 다르고 그러한 차이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고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헛소립니다.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핵심이 아닙니다. ‘문화마다 다르다’ 이게 중요했어요.

④ 물질적 풍요에 대한 관점은 문화마다 달랐는걸요..? 그것의 고유성이라니 말도 안 되네요.

⑤ 서구적 가치는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6. ③
문단마다 사례가 나옵니다. 당연히 3번이네요.

① 여러 개념이 드러니지 않았죠?

② 역사적 관점? 변화 과정? 둘 다 아닙니다.

④ 이론적 입장을 대비하는 건 없었어요.

⑤ 유사한 ‘경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순차적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사례 언급하면서 ‘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박고 시작했으니까요.

7. ③
‘콰큐틀 인디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낭비를 하지만, 부의 분배라는 부수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꼭 공종체 존속에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① 화제입니다.

② ‘새흘 족’의 사례네요.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려다 결국 목초지 터지고 망했습니다.

④ ‘마링 족’은 돼지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노동력에 여유를 얻고 생태계 균형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⑤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있죠?

8. ③
윗글의 논지는 문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 대한)차이입니다. 즉, 상대적인 태도인데, 3번은 그렇지 않죠. 중, 고등학생들이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합니다. 이성을 좋아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대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판단까지 하네요. 틀렸습니다.

9. ⑤
어휘 생략

〔10~14〕

10. ④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라며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미 화자가 경험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맞죠. 청산에 살겠다!라고 합니다.

② 슈국은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가을이 오니 좋다!라고 말하니까요. 마지막에서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옥 됴타’라며 ‘슈국’에 대한 만족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뫼 보고 낙시질도 하고 석양도 보니까 ㅆㅅㅌㅊ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⑤ ‘산협촌의 고독한 그림’이라고 했으니,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허용 가능하겠네요.

11. ④
여음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매 연마다 반복되어 형식적으로 통일감을 주죠. 당연합니다.

12. ③
갑은 속세를 등지고 을은 자연을 즐기네요. 속세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나)는 자연을 즐기고 있는 상황을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등지고 자연에서 유유자적 할 것이라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① 속세를 등지는데 현실 개혁이라뇨...(가)도 청산을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② 개소리네용

④ 현실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⑤ 현실을 등집니다!

13. ②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노년의 서글픔..?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해 그런 정서를 허용하기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① 실개천, 황소 등 공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니까 맞는 말이네요.

③ 당연하죠? 과거의 일들을 그리워합니다.

④ 화려하지 않은 누의와 안해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삭줍는 행동도 드러나니 확실히 허용 가능합니다.

⑤ 초라한 지붕이니 초가집 허용 가능하고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 거리는 것이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도 허용 가능하겠습니다.

14. ⑤
나머지는 전부 화자가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는 등의 특정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인데, 하늘은 그냥 '공백한 하늘'로 묘사될 뿐입니다.